

전남 김밥페스티벌 성료...“김산업 성장 가능성 확인”

서울서 내외국인 21만여명 참여
물류확충·품질관리로 신뢰도 높여
천일염 우수성 소금박람회도 성황
고부가가치화·글로벌 브랜드 제고

전남도가 서울서 개최한 2024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과 소금박람회에 내외국인 21만여 명이 몰리는 등 인기를 얻으며 김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과 '2024년 소금박람회'를 동시 개최했다.

전남 김과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글로벌 브랜드 제고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산 김과 김밥, 김부각, 김스낵 등 김 제품에 대한 방문객의 관심이 뜨거웠다.

전국에서 소비하는 80% 이상의 김을 생산하는 전남도는 김 역사 전시관, 아트 김밥 체험관, 김 뜨기 체험관, 수산물 홍보·판매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전남산 김에 대한 마케팅과 글로벌 브랜드를 높였다.

소금밭 어린이 놀이터, 천일염 웰빙 체험존, 천일염 염장 체험존, 천일염 카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2024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소금박람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등 천일염의 건강성도 부각했다.

특히 전남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김밥 10여 종을 장성의 현대푸드시스템에서 생산해 방문객에게 시식한 결과, 호응도

가 높아 국내용·수출용 전남산 김밥 제품에 대한 다양화를 꾀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도는 이번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산 김의 글로벌 인지도를 더욱 높이

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제품 종자 개발, 친환경 김 생산 면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2차 가공된 마른 김은 검사소를 통

한 품질 관리제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김 거래소를 통해 전남을 찾은 국내의 바이어에게 마른 김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규모 마른김 전용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2차 조미김 등 가공기업에 물량을 공급하는 등 김 가공기업의 부가가치화를 지원, 세계 김 산업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박영채 전남도해양수산국장은 "전남산 김 관련 제품을 확대하고, 천일염의 우수성을 지속해서 알리겠다"며 "앞으로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다양한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 지난해 농수산물품 역사상 단일품목 수출 1조원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으로 성장했다. 수출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김 시장 확대에 맞춰 기업이 원물 확보를 위해 주산지인 전남으로 내려오는 추세인 점을 감안, 전남도는 김 관련 축제를 통해 'K-김'의 80%인 전남산 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김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소방, 수능 수험생 119 이송 서비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4일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119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119 이송 서비스'는 장애나 사고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화예약을 받아 시험 당일 119구급차로 자택에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데려다주고, 시험이 끝난 뒤 다시 자택까지 이송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시험일 하루 전(13일)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예약 하면 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또 시험장 내 응급환자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구급대원을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최정식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광주소방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인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

피해자·유족에 올해 12억 지원

광주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영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약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

악성종괴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체 석면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석면노출 피해구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의심자를 방문해 석면피해 인정부터 구제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전단 등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환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석면피해 인정 사실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구제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목포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 열린다

5~6일 전남도·도교육청 주최
외교사절 강연·테마토크쇼 다채

전남도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평화페스티벌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해 개회식, 기조 강연, 특별강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강연,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5일 오전 10시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개회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환영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베리트레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저명 인사들의 축하 영상이 소개된다.

본행사에서는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자넷잡슨 남아공 투투재단 CEO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 한국에 대한 함의' 기조강연이 준비됐다.

같은날 오후 6시 30분부터 목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이 한국 문화예술과 한류 문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테마토크쇼 '김대중과 한류 문화'가 진행된다. 이은 명필름 대표, 배우 장현성, 역사학자 전우용, 역사스토리텔러 썬 김 등이 참여한다.

특별강연에는 신냉전,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권위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5일에는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의 저명한 평화학 권위자인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국-중국-러시아의 대결과 세계평화의 길' 특별강연이 있고, 김명자(KAIST 이사장) 전 환경부장관과 아시아 최초 헌법재판소에 기후헌법소원을 내 승소한 우리나라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특별강연 및 토론회가 진행된다.

6일 오전에는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 및 특임교수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상균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시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주한 외교사절 초청 특별 세션으로 안토니오 베네데티즈 동티모르대사가 '역사적 유대: 김대중과 동티모르'를, 게오르그 슈미트 독일대사가 '김대중: 독일인의 시각에서 본 그의 유산'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는 5일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 6일 '청소년 평화인권 골든벨 한마당', '나는 김대중이다' 연극 상연 등이 계획됐으며, 6일 오후 6시 목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평화콘서트에는 퓨전국악그룹 린, 락밴드 데이브레이크, 가수 송가인 등이 출연한다.

오지현 기자

전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내달 종료

도 "내달 15일까지 사용해야"

전남도가 2024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오는 12월15일 종료되므로 지원금을 서둘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 679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약 7억 원을 포함해 33억 원 규모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기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당 자부담 20% 포함 48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당 자부담 20% 포함 48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전국 최초 자체 신규사업이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향우를 대상으로 인당 자부담 50% 포함 50만원을 지원한다.

공급 품목은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100여 종으로 사

업 대상자가 기호에 따라 개별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구매하면 공급업체가 거주지까지 직접 배송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종 주문일인 12월15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자동 소멸한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 대상자는 기한에 전액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도민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